

인터뷰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세계가 함께 알아야죠”

한국 세계문화유산 담은 CD '5000년의 향기 III' 제작

한 개인의 노력으로 불국사·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7곳이 '5000년의 향기III' 시디롬(CD-ROM) 한 장에 담겼다.

문화유산 사진 촬영에서 시디롬 사진 배열, 원고 작성까지 맡은 사람은 바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43·사진) 소장. 황 소장은 “세계는 우리 문화유산을 주목했지만, 우리는 정작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외국어로 번역된 홍보자료를 만들지 않았다”며 바로 이 ‘안타까움’이 작업을 시작하게 만들

었다고 말했다. 이 작업은 민간단체인 한국민족음악인협회와 뜻있는 몇몇 전문가의 도움,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기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5000년의 향기”는 황 소장이 세 번째로 만든 세계문화유산 시디롬이다. 기존에 나왔던 시디롬에 불어와 중국어를 추가해 영어, 일어, 한국어 등 5개 국어 판을 포함했고, 7곳의 문화유산에 각 3분의 동영상과 총 200여장의 사진을 실어 내용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일종의 완결판이다.

황 소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거나 어린이·청소년



5개국어로 제작된 '5000년의 향기 III'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담고 있다.



훈 선생에게서 4년간 한옥구조이론을 배웠고, 문화재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찾아다녔다.

“얼마 전 되찾은 창녕 관룡사 석장승은 몇 개월 전에도 얼싸안고 인사하던 오랜 친구”라고 말하는 황 소장. 불자는 아니지만 종교를 초월해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그에게서 젊은 열정이 느껴진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간다라 불교유적 발굴조사 시작

불교미술사연구소 3일부터

국내 최초로 한국 불교미술의 원류를 밝힐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발굴조사가 실시된다.



한국불교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사진)는 한국불교미술사학회와 함께 16명의 조사단원을 구성, 2월 3일부터 18일

간다라 불교미술의 본고장인 파키스탄 탁살라 지역에서 발굴·학술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눈으로 ‘보기만’ 했던 답사형식의 불교원류 조사와 달리, 땅 속에 묻혀있는 불교유적을 직접 ‘찾는’ 최초의 발굴조사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문명대(중국대) 교수는 “탁살라 지역은 최초의 동·서문화 교류지로 주목받는 곳”이라며 “이번 조사 성과를 모아 10월에는 간다라학 국제학술회의도 개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전면 개정

390개 항목으로 대폭 보완

문화재 수리의 시공기준을 제시할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가 30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문화재청은 2001년에 수립한 문화재 수리 기준 정비 계획의 첫 결과물로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조사·연구가 지난해 말 완료됐다고 2월 3일 밝혔다. 이 표준시방서는 종전 시방서보다 3개 공사종목 266개 항목이 늘어난 21개 공사종목 390개 항목으로 대폭 보완돼, 문화재 원형보존과 수리 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방서에는 사전현장조사 의무,

공사 책임, 유구정비 규정, 안전사고·재해예방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29일로 논문제출 연기

불교학 결집대회 조직위

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조범) 논문제출 기한이 2월 29일로 연장됐다. 5월 1~2일 중앙 승가대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결집대회 조직위원회장 해주 스님은 “연구자들이 좀 더 충실한 내용의 논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1월 31일까지였던 논문제출 기한을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1>



믿음·소망·사랑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최신 의학기법이나 고가의 장비 개발에 의해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질환을 진단,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종종 감탄과 더불어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잘 보면 그러한 최신 치료법들은 대개 고비용이어서 실제로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한번 치료에 고액을 지불할 수 있는 부유층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며칠전 모 일간지에 한국 선불교에서 대표적인 위치를 가진 한 스님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한국에는 틱낫한이나 달라이 라마와 같이 세계 평화

를 위해 헌신하는 세계적 스님은 왜 없느냐”는 질문에 그 스님은 “그들 스님

믿음이 사랑으로 꽃피지 않으면 결국 미안에 갇혀 죽은 믿음이 될 뿐이다. 믿음이 깨달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성경에서는 길게 참음이요, 오랜 기다림인 소망을 지적하고 있다. 불자도 마찬가지로 한 다. 부처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 끊임없는 기다림의 자세를 통해 깨달음이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주위의 힘들과 고통 받는 중생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지어가게 된다.

따라서 불자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밖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스스로 돌아보는 일이다. 본래 면목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에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향하여 향

믿음 근본으로 항상 내면 살피라

중생 눈물 닦아주는 깨달음 돼야

은 선의 진리를 모릅니다. 단지 자비의 보살행을 펼 뿐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처럼 하나의 티끌도 없는 부처님의 심인(心印, 깨달음)은 ‘참선오로만’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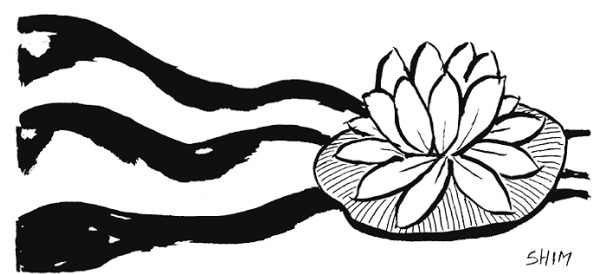
한편, 신타르타는 왜 평생을 노상(路上)에서 보내야 했을까? 삶을 힘들어하며 갈구하는 이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삶을 보냈으면서도 스스로 아무 한 말도 없었다고 부정하면 그 쓸데없는 것을 왜 했을까? 역시 신타르타는 선정(禪定)은 알았지만 참선을 하지 않았기에 부처의 깨달음을 알지 못했던 모양이다.

믿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옛 조사의 말씀과 더불어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하고 있으며,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에서도 특히 사랑이 제일이라 한다. 산을 움직일만한 믿음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없다는 성경 구절처럼

이 우리 각자의 기다림의 자세다.

이런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모습이 없다면 자신들의 믿음이 그리 깊어 산을 옮기고 그 깨달음이 하늘과 같은 맑음을 얻었다 한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나 깨달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일 뿐이다. 항상 깨어있음으로 기다림을 이루어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는 한 그 무엇을 하더라도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깨달음이란 우리 중생과는 상관없이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어 개발되어지는 몇몇 부유층만을 위한 고가의 최신 치료 기술이나 의료 장비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누가 부처와 보살이 다르다 했는가. 오직 기다림의 자세로 나는 부처를 원하지 않는다. 간절하고 길게 기다림 수 있으신 진정 삶은 아름다울 뿐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중요무형문화재 관계자들은 보유자에 대한 활동평가가 필요하며, 평가주기는 2년 내지 3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한국 갤럽에 의뢰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됐다. 설문조사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문화재(전문)위원·관련 학자 등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 모두 1,024명을 대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도평가, 전승지원금,

는 순서로 답했다. 또 활동평가 후 전승 활동이 어려운 보유자에 대해 보유자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48.2%)는 의견과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50.8%)는 의견이 비슷했다.

전승지원금은 활동과 종목과 취약종목을 고려한 차등지원(51.6%)과 보유자 전수교육 지위에 따른 일률적 지원(47.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차등지원은 관계전문가(77.4%)와 시민단체 회원(78.3%), 시·도 공무원(67.1%)에서 높게 답했고, 일률적 지원

‘인간 문화재’ 활동 평가해야 86%

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제도 설문결과 지원금 지급방법 공무원 ‘차등’ 전수자 ‘일률’ 선호

전승활성화 종목 지정·관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활동평가·사후관리 등 6개 분야 26개 문항에 대한 질문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89.2%)이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해, 현행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활동평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4%가 인정 후 활동평가가 필요하며, 활동 평가 주기는 3년(30.8%), 2년(28.9%)이 적당하다

는 전수자(56.8%) 그룹에서 그 비율이 높아 응답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인식차를 보였다. 보유자의 적정인원에 대해 개인 종목은 종목별로 1인(30.5%), 2인(23.3%), 무제한(29.2%) 순으로, 영산재와 같은 단체 종목은 출연인원의 5% 이내(34.5%), 기량이 가장 뛰어난 대표자 1인(27.7%)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유진 기자

「혁혁 六壬」誌 창간기념 할인판매 안내

(2월 4일부터 - 2월 20일 까지 15일간)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는 급변 당국의 허가를 얻어 「천문역학 六壬」지를 월간으로 발행하게 되어 오는 2월 20일 3월창간호가 전국에 배포 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래의 육임서를 한시적으로 30%할인 판매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종전가격으로 환원됩니다.

할인도서 품목	종전가격	한시 할인 가격
■ 육임개정비법 수정보완본	2,500,000	1,750,000
■ 육임개정비법 혁신판	1,300,000	910,000
■ 육임개정비법 혁신판 휴대용	1,500,000	1,050,000
■ 육임개정비법	350,000	240,000
■ 육임개정법 휴대용	310,000	220,000
■ 호사 육임 강의록	410,000	287,000
■ 호사 육임강의 비디오 CD	900,000	630,000
■ 육임 신수비결	300,000	210,000
■ 오행제례의식집	150,000	105,000
■ 태아길일길시선택분만비법	74,000	51,000
■ 육임지두생활비법	15,000	10,500
■ 육임비요형이상법	150,000	105,000
■ 육임운명판단법	130,000	91,000
■ 육임세일정단법	100,000	70,000

- 문의 : 02-993-8680(담당 정주연)
- 입금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배 본 : 입금후 다음날 도착시켜 드립니다.

전국 「육임학당」 수강 접수안내

본회는 2월1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육임학당전국수료식을 거행하여 각 지역에서 육임을 공부하신 분들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는 2월부터 다시 학당을 여니 아래 일정에 맞춰 등록해 주십시오

육임학당 「전주숙」	2월 8일(日)	063-284-7714
육임학당 「광주숙」	2월 9일(月)	062-224-8680
육임학당 「진주숙」	2월 10일(火)	055-755-1644
육임학당 「부산숙」	2월 11일(水)	051-756-0141
육임학당 「대구숙」	2월 12일(木)	053-624-8680
육임학당 「호서숙」	3월 13일(金)	02-993-8680
육임학당 「강남숙」	2월 14일(土)	02-525-3039

(이곳 강남숙에서는 비구니 스님들께서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등록비 1백5십만원
- 교 재 호사 육임강의록 상(학습서) 하(활용서)드림
- 마 감 2004년 2월 7일까지 등록 요망
- 강 사 고복자 호사
- 기 간 3개월 13주 52시간

- 문의 : 위 각 학당 전화로 문의 하십시오.
- 입금 : 우리은행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공익법인 한국 육임 학회